도널드 주한 미대사의 5.18 국제학술대회 참석 유감

지난 5월 26일자 한겨레신문에 "유엔본부에서 열린 첫 5.18 국제학술대회"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http://www.hani.co.kr/arti/PRINT/796398.html)에 보도된 것처럼, 과거 CIA 서울지국장과 한국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레그가 뉴욕유엔본부에서 열린 5.18기념재단의 국제학술대회에 초청연사로 참석했다.

15년 전인 2002년 5월 18일 수백명이 참석한 광주시민법정은 그레그와 다른 미국 관료들(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를 포함한)이 1980년 광주항쟁 진압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 "인류의 반하는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레그는 수많은 증거와는 반대로 자신은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은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따라서 도널드 그레그를 초청한 5.18기념재단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레그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모임은 "최우선적 과제는 남한 당국이 광주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란 점에 전반적 합의"에 도달했다(당시미국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미국 정부에 보낸 문서에서 인용). 이것은 전두환에게광주봉기를 진압하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1980년 5.18항쟁 9일 전에박정희가 암살당한 바로 그 안가에서 가진 모임에서 글라이스틴은 전두환에게미국은시위대에 무력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상황에 대한미국측의 인지와 의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그레그가 미국대사로 재임할 당시 그레그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너무나 커서, 그는 예상되는 시위 때문에 남한의 어떤 대학에서도 공개연설을 하지 않았다(그레그 자신이 인정한 바이다). 2005년 논문에서 그레그는 2003년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반미감정을 표현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이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도널드 그레그를 귀빈으로 초청연사로 토론회에 참석케 한 것은 광주시민들의 진심어린 투쟁의 세월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 전두환을 비호한 도널드 그레그와 다른 미국 관료들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최근 5.18에 대한 공격에는 광주항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도 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개입에 대한 미국과 CIA의 거짓말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최소한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 5.18재단은 진실을 밝힌다면서, 북한의 개입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CIA의 정보를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암묵적으로 CIA를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로 인정하여 광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그레그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전두환이 광주민중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긴 자신과 미국의 역할을 진심으로 밝히는 경우에만 그를 초청했어야 했다.

Statement on Donald Gregg's Participation on 5.18 International Conference in New York

As reported in a *Hankyoreh* article entitled, "The spirit of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omes to UN headquarters in New York," on May 26, 2017, former CIA Seoul station chief and US ambassador to Korea Donald Gregg was the honored guest of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at a conference in New York at the United Nations.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 edition/e international/796466.html)

Fifteen years earlier, on May 18, 2002, a Gwangju Citizens' Tribunal involving hundreds of people found Gregg and seven other US officials (including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for their role in the suppression of the 1980 uprising. Gregg has repeatedly asserted, contrary to mountains of evidence, that he has no reason to apologize to Gwangju citizens and that the US did not know what was happening there in 1980.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s decision to invite Donald Gregg is therefore quite regrettable.

Gregg participated in the May 22, 1980 White House meeting that came to "general agreement that the first priority was the restoration of order in Gwangju by the Korean authorities" (quoted from US government documents by then-US Ambassador William Gleysteen)—a clear signal to Chun Doo-hwan for him to suppress the uprising. Nine days before May 18, 1980, in a meeting in the very same safe house where Park Chung-hee had been assassinated, Gleysteen had instructed Chun the US would not oppose the use of the army against demonstrators, another indication of US knowledge and intent.

So great was public disapproval of Gregg when he was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from 1989 to 1993, he never made a publicized address at any Korean university because of expected protests (according to his own admission). In an article in 2005, he described the results of a 2003 South Korean poll as "shocking" because of the anti-American feelings expressed by so many people.

For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simply to ignore this history and invite Donald Gregg as an honored guest ignores years of Gwangju citizens' heartfelt grievances—and their righteous condemnation of Donald Gregg and other American officials as the hand behinds behind Chun.

Recent attacks on 518 include false claims that the uprising involved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set the record straight, but in doing so, it is at least as significant to clarify decades of US government and CIA lies about US involvement. Rather than doing so, the May 18 Foundation routinely uses CIA sources of information to "prove" no North Korean involvement, thereby implicitly endorsing the CIA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disrespecting the spirit of Gwangju.

Only If Gregg would apologize sincerely and truthfully reveal his and the US role in encouraging Chun to use force against Gwangju citizens should such an invitation have been made.

George Katsiaficas katsiaficas@gmail.com